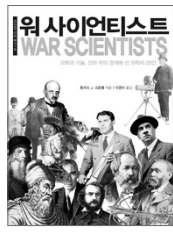


전쟁, 선과 악의 경계에 선 과학자들

‘워 사이언티스트’

토머스 J 크로웰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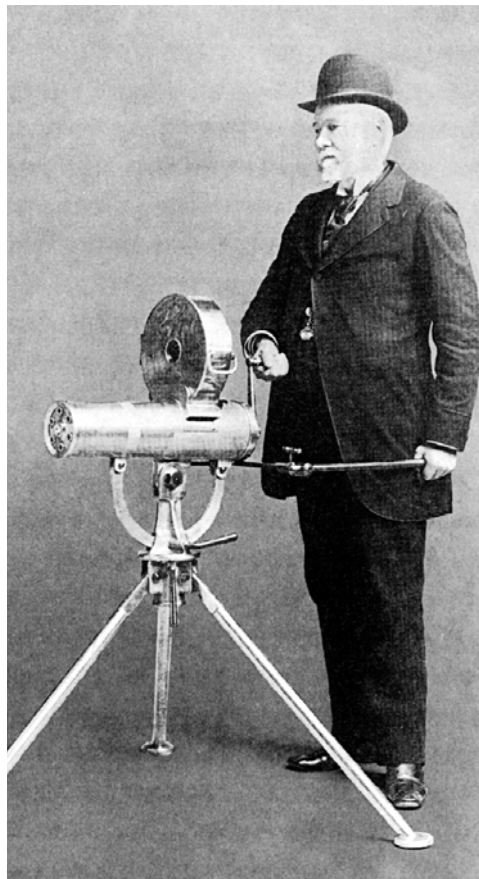
헬리콥터를 발명한 이고르 시코르스키는 인명구조용으로 만든 자신의 발명품이 전쟁용으로 변한 사실에 고뇌했다. 라듐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탄 과학자 마리 퀴리는 수상 소감에 앞서 “라듐이 사람을 살상할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며 염려했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열렬한 민족주의자였던 독일의 화학자 프리츠 하버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독가스를 개발해 연합군에 살포한 일을 자신의 최대 업적으로 여겼다. 그는 연합군 진지 쪽으로 몰려드는 독가스 구름 사진을 일평생 액자에 보관할 정도였다.

또 일본의 의생물학자인 이시이 시로는 세균을 통해 중국에 전염병을 퍼뜨리며 수천 명의 사람을 생체실험 대상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생체실험을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한 일본 의술에 자부심까지 가졌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1833~1896년)은 어렸을 때 그는 자신이 파괴적인 위력을 지닌 무기 발명가로 후대에 회자될까봐 늘 불안했다. 특히 자신의 형이 세상을 떠났을 때, 노벨이 사망한 것으로 착각한 한 일간지가 자신을 ‘죽음의 상인’이라고 불렀기에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자신이 애써 만든 발명품이 자신의 평판을 그르칠 것이 두려웠던 그는 “세계평화에 써 달라”는 말과 함께 사재 900만달러를 털어 노벨상 재단을 설립했다. 생전에 살상 무기를 통해 재산을 크게 불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노벨이란 이름은 평화와 기술 진보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삼각대 위에 설치된 기관총을 작동해 보이는 리처드 개틀링. <플래닛미디어 제공>

이 밖에 방탄조끼, 레이더, 원자폭탄 등 전쟁과 관련된 무기를 개발한 과학자들의 에피소드가 흥미진진하게 이어진다.

양날의 칼을 쥔 수 밖에 없는 과학자. 지금도 전쟁의 포성이 멈추지 않는 시대에, 과학자 본연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플래닛미디어·1만9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권을 다 읽고도 표현하지 못해 답답했다면

‘소설 읽는 방법’

히라노 게이치로 지음



정작 소설을 열심히 소설을 읽지만 정작 “어떤 책이냐”는 물음엔 구체적으로 대답을 못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책이 나왔다. 일본 현대문학의 기수 히라노 게이치로(36)가 소설 감상법에 대해 쓴 ‘소설 읽는 방법’이다.

2008년 ‘책을 읽는 방법’에서 ‘슬로 리딩’(천천히 읽기)라는 큰 틀을 제시했던 그는 장르 자체에 대한 치열한 고민에서 출발해, ‘본질’에 충실한 히라노 게이치로만의 소설 독법을 다채롭게 펼쳐놓는다.

제1부 기초편에서는 소설을 읽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생각의 틀을 간결하게 설명하고, 제2부 실천편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소설 아홉 편의 예문을 뽑아 기초

편에서 살펴본 생각의 틀을 실제로 적용해 텍스트를 꼼꼼히 읽어 가는 시범을 보인다.

제목과는 달리 이번 책은 ‘소설을 조금 더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표현하는 저자는 소설을 읽기에 앞서 작가 편에 서서 메커니즘, 작가 발달(발표시기) 과정, 기능(장르와 독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회 역사 문화적 맥락에서 소설의 위치에 접근하라고 조언한다.

폴 오스터의 ‘뉴욕 3부작’과 미르체아 엘리아데의 ‘짧은 짧은 짧은’, 이언 매튜언의 ‘암스테르담’ 등을 만날 수 있고 국내에 아직 소개되지 않은 ‘일본문학의 성쇠사’ ‘사거리’ ‘발’의 일부를 미리 맛볼 수 있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다.

<문학동네·1만2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두 시인의 따뜻한 감성의 기록들

‘더 레터’

나희덕·장석남 지음



중견시인 나희덕(45)과 장석남(46)씨가 지난 1년간 주고받은 편지를 모은 서간집이 출간됐다. 두 시인은 서로 ‘똥무’라고 부를 정도로 막역한 사이다.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인터넷을 통해 서로 통의 편지를 주고받은 두 사람은 이를 ‘더 레터’라는 이름으로 엮어냈다.

서른 통의 편지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 1년 사이 장 시인과 가장 가까웠던 최하림 시인이 별세했고, 나 시인은 여동생을 불의의 교통사고로 잃는 아픔을 겪었다.

그 와중에도 두 시인은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세계 작가 축제에 참석하며, 이사도 하고, 공

부의 세계에 빠져들기도 했다.

이처럼 묵묵히 일상을 견뎌 온 두 시인이 인생에 대해 담백하고 진솔하게 털어놓은 이야기들은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는 현장을 유감없이 보여 준다.

나 시인과 장 시인은 편지를 통해 다양한 면모를 드러낸다. 이들은 문학가답게 예민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고, 자연의 미묘한 변화를 절묘하게 포착한다. 즐겨 읽는 책이나 고집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주머니 받거나 편지로 이어 가는 대화에서는 인문학적 지식의 향연이 펼쳐진다.

또 가족이나 생활에 대한 소회를 가감 없이 서술한 대목에서는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일상사를 엿볼 수 있다.

<중문생각·1만18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우리 시 ‘철학적으로’ 읽기

‘철학적 시 읽기의...’

강신주 지음



‘철학 vs 철학’ ‘철학이 필요한 시간’ 등 철학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책들을 주로 써온 강신주씨가 ‘철학적 시 읽기의 괴로움’을 출간했다.

지난해 출간한 ‘철학적 시 읽기의 즐거움’의 후속편 격으로, 우리 시에 현대철학자들의 비평을 사상과 접목시켜 ‘철학적으로’ 시를 읽어냈다.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이상복의 시를 읽으면서 그 속에 담긴 히스테리와 강박증의 징후를 자

라카의 철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들여다보는 식이다. 이런 식으로 최승호와 게오르크 짐멜, 문정희와 뤼스 이리가 레이, 한용운과 카를 바르트, 김정환과 카를 마르크스 등 14명의 시인과 14명의 철학자를 짝 지었다.

저자는 “시와 철학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처럼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동녘·1만6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현대인이 갖춰야 할 화술·인간관계

‘왕을 설득하라’

이상각 지음



시인이자 역사가인 이상각씨가 중국 고전 ‘전국책’을 바탕으로 현대인이 갖추어야 할 화술과 인간관계 비법을 다룬 ‘왕을 설득하라’를 펴냈다.

‘전국책’은 중국 전국시대 각 나라의 책사들의 유세기록과 흥망성쇠를 총망라한 고전으로 중국의 전 주석 마오쩌둥(1893~1976년)은 “혼란을 극복하고 창조를 이룩하며 적을 간파하고 승리의 자신감을 주며 어떤 상대라도 설득해 내 편으로 만들 수 있

는 동양의 보물 같은 책”이라고 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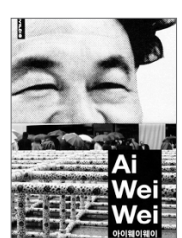
중국 전국시대 유세객들이 천하를 상대로 벌인 언변을 써줄로 삼고, 그들과 군주·신하·라이벌의 지략경쟁을 날조로 삼아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화술과 인간관계의 정수 여든한 가지를 가려 실었다.

옛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오늘날 실전에서도 응용할 수 있는 지혜가 가득 담겨있다. <유리창·1만3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그에게 직접 듣는 작품 메시지·작업과정

‘아이웨이웨이 육성으로 듣는...’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 지음



중국의 설치미술가이자 반체제 인사인 아이웨이웨이(艾未未·54)와의 수년에 걸친 인터뷰 내용을 담은 ‘아이웨이웨이 육성으로 듣는 그의 삶, 예술, 세계’가 나왔다.

아이웨이웨이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메인스타디움인 나오차오(鸟巢)의 설계에 참여한 저명한 설치미술가로, 올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 건축가 승효상씨와 공동감독을 맡았다.

아이웨이웨이를 인터뷰한 저자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는 스위스 취리히 출신의 현대미술 큐레이터이자 비평가, 미술사가로 세계적 미술잡지 ‘아트북’이 선정된 2009년 ‘현대 미술을 움직이는 파워 100인’ 1위

에 오르기도 했다.

책은 최근 수년간 인권운동가로서의 면모가 더 두드러진 아이웨이웨이의 작품 세계에 무게를 뒀다.

1990년대 후반 아이웨이웨이의 작품을 처음 접한 이후 10년간 정기적으로 인터뷰를 했던 오브리스트는 책에서 그의 삶과 작품세계의 변화를 연결지어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그는 단순히 현실을 재현하지 않고 현실을 창출한다. (중략) 수년간의 모든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는 예술의 개념을 확장시켰다. 그의 전체론적 접근 방식은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회적 조각’이라는 요제프 보이스의 접근 방식에 비견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미메시스·98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신간

▲아프리카 방랑=빌 브라이슨, 세스 노터블과 세계 3대 여행작가로 꼽히는 폴 서투가 2000년대 초반 아프리카를 여행하고 쓴 여행기. 고물 기차와 닭장 버스, 가축용 트랙, 통나무배를 타고 무장 강도의 총격을 받는 아찔한 순간도 넘겨가며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동쪽을 종단하는 과정이 생생하게 담겼다. 아프리카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 정치와 사회상도 깊이 있게 전한다. <작가정신·2만8000원>

▲산 위의 신부님=청년시절 방향기를 거쳐 나환자나 행려자 돕는 일을 하다 늦은 나이에 사제 서품을 받은 박기호 신부가 서울을 떠나 소백산 등지에 머물면서 생애 처음 농부가 되어 경험한 6년간의 농촌체험담을 담았다. 그는 2006년 ‘산위의 마을’에 일흔여섯 가족과 함께 기도와 노동과 공생의 기쁨으로 살고 있다. 박 신부는 ‘노동의 새벽’ 박노해 시인의 형이다. <휴·1만3000원>

▲망의 전쟁 1, 2=베스트셀러 ‘밤의 대통령’ ‘강안남자’의 작가 이원호씨가 1970년대 서울 강남 개발을 둘러싼 폭력 조직간의 치열한 암투와 세력 다툼을 소재로 쓴 새 장편소설. 북큐브를 통해 전자책 ‘간담’로 연재했던 것을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당시 사회상을 돌아볼 수 있고, 돈과 권력을 향한 인간의 열망과 몸부림을 보여준다. <네오픽션·각 권 1만3500원>



▲괴괴리와 국화=‘향수’ ‘고향’ 등의 시에서 섬세하고 고운 시어를 선보인 정지용(1902~1950년)의 시인은 당대 인기 있는 수필가이기도 했다. 이승원 서울여대 교수가 정지용 시인의 산문을 골라 엮었다. 강진과 다도해, 선천, 의주, 평양, 부산, 통영 등을 기행하면서 쓴 글들과 ‘문장’에 투고된 시에 대한 평을 비롯한 평론, 그리고 신문·잡지에 실었던 짧은 산문들이 묶였다. <김은샘·2만3000원>

▲중용 인간의 맛=최근 ‘중용한글여주’를 출간한 도올 김용옥이 이를 어렵게 느낄 일반 대중을 위해 쉽게 풀어 쓴 ‘중용’ 해설서다. 중용이 BC 5세기 자사라는 한 사상이자 일관되게 쓴 철학책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해설했다. 현재 EBS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자의 특강 ‘중용, 인간의 맛’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통나무·1만3000원>

▲개그맨=2008년 중앙신인문학상으로 등단한 김성중(36)씨의 첫 소설집. 그동안 써왔던 소설들을 모은 것으로 ‘개그맨’ 외에 ‘허공의 아이들’ ‘그림자’ ‘개발신인장’ 등 대표작 9편이 실렸다. 표제작 ‘개그맨’은 젊은 시절 애인이었던 개그맨의 부음을 접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그의 마지막 흔적을 찾는 중년 여성의 내면을 담담하면서도 아름답게 그렸다. <문학과학사·1만1000원>

▲꼭두기 인생론=동화 ‘가방 들어주는 아이’로 잘 알려진 장애인 동화작가 고정욱씨가 10대 청소년들에게 들려주는 인생론. 어린 시절 장애가 있는 자신의 장래에 대한 걱정을 친구들을 통해 진정한 우정과 배려, 사랑을 배웠다는 저자는 행복은 함께 나눌 때 더 커진다는 ‘꼭두기 정신’을 강조한다. <산티·1만3000원>

▲원시인도 아는 경제 이야기=원시 채집경제에서 현대 자본주의까지 경제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했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인류가 어떻게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를 열고, 발전시켜 왔는지 설명한다. 초등학생의 입장에서 경제와 역사에 관한 중요한 물음을 제시하고 명쾌한 답을 준다. <미래아이·1만800원>

▲다리가 길어지는 비결=강물 위에 우연히 쓰러진 통나무나 징검다리에서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다리의 발전 과정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명쾌하게 설명했다. 튼튼한 다리의 비밀, 여러 가지 다리의 모양과 힘의 원

리, 다리의 종류에 대해 알려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길이를 자랑하는 다리 인천대교에 대한 궁금증도 과학적으로 풀어본다. <학고재·9500원>

▲또 읽어줘! =동화 속 캐릭터 심술꾸러기 용에게 빠져 자꾸만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 아기 용의 마음을 익살스럽게 표현한 그림책이다. 항상 놀고만 싶은 아기 용은 엄마를 붙잡고 “또 읽어줘, 또!”라고 조른다. 아이를 위해 몇 번이고 책을 읽어주는 엄마, 아빠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푸른숲주니어·1만원>

▲난 그것만 생각해=성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열다섯 살 소년의 좌충우돌 성장기. 커밍아웃, 동성애 등 성 정체성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를 직접적으로 다뤘다. 레즈비언인 앙글레 선생님을 이웃사촌으로 둔 평범한 소년 이스마엘. 친구들에게 으스스하게 위해 앙글레 선생님의 레즈비언 정체성을 공개하고 마는데..... 성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제를 수록했다. <검드소·1만원>

어린이 책꽂이